< 별첨 1 >

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
*「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」 초청

祝　　辭

2019. 7. 26. (금)

금 융 위 원 장
최　종　구

Ⅰ. 인사말씀

반갑습니다.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
오늘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
먼 곳까지 와 주신
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님,
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TF의 여러 위원님께
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또한, **구조조정 관련 시장 참여자**인
자산관리공사 문창용 사장님과 **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님**,
참석하신 자본시장 전문가 여러분께도
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Ⅱ. 최근 환경변화와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중요성

최근의 **구조조정 환경**은
경제의 무게추가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이전함에 따라
전통 주력산업의 쇠퇴와
이를 기반으로 하는 **지역 경제 및 일자리 불안**이 지속되는
전환기를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

특히, 글로벌 경기둔화가 진행되면서
자동차·조선 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,
최근 미·중 무역전쟁, 일본의 무역보복 등 대외환경의 변화로
우리 주력산업의 위기 가속화에 대한 **불안감**도
적지 않은 상황입니다.

그간 IMF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
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
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
신속히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**성과가 있었으나,**
그 나름의 한계도 드러낸 바 있습니다.

무엇보다 **기업의 재무구조 개선**에만 치우쳐
근본적인 사업 체질개선은 미흡하였으며,
채권자 중심의 **은행 자금의 속성상**
모험자본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
기업가치 제고 보다는
현상유지에 안주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.

또한, 구조조정 과정에서
채권자와 기업가 사이에 생긴 **불신의 벽**으로
채권은행은 자금회수에만 주력하고
기업가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.

특히, 최근 기간산업·대기업 위주 구조조정보다는
중소기업, 하청업체 등
산업 생태계 차원의 구조조정이 더욱 중요해지고,
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 의존도도 높아지면서
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
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입니다.

Ⅲ. 당부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

< 당부사항 >

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
선진화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을
만들어 나가기 위해 **몇 가지 당부**를 드리고자 합니다.

첫째, 금융기관을 포함한 구조조정 시장 투자자들은
모험자본 역할을
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시장에서는
서서히 **다양한 민간 플레이어들이 출현**하고 있으며,
이러한 **모멘텀을 유지**하기 위해서는
모험자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.

특히, 현재 구조조정 시장에서
초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
캠코, 유암코, 성장금융 등이
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을
선도하고 비춰나가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둘째, 시장 참가자들은
달라진 구조조정 시장의 요청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
재무구조개선 뿐만 아니라
전문적인 **사업구조조정 역량을 개발**해 나가야 합니다.

미국과 같이
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이 활성화된 국가는
산업별로 전문화된 플레이어와
전문경영인 채용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

우리나라도 **기업의 체질개선**을 이뤄낼 수 있는
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
관련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.

셋째, 자발적이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결국
투자자, 해당기업,
산업생태계(supply chain) 내 원청·하청업체간
상호 신뢰가 없이는
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

투자자는
먼저 **해당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전문성**을 키우고
이를 바탕으로
회생 가능한 기업을 **잘 선별하여 지원**해야 합니다.

기업주는
기존의 경영방식 답습에서 벗어나
투자자 등 외부의 객관적인 경영조언에 귀 기울여
재무·사업구조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< 향후 정책방향 >

앞으로도 **정책금융**은
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,
캠코의 **회생기업 신규자금(DIP 금융) 지원** 등을 통해
기업구조조정 시장에
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**마중물 역할**을 하겠습니다.

또한,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한 축인 **법원 회생절차**에서
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,
법원과의 공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정책금융기관도 법원의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
DIP금융 공급을 확대하고
M&A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
채권매각을 보류하는 등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.

아울러, **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**
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
당사자간 **상호 신뢰를 형성**해 나가기 위해,
성공사례를 **시장에 널리 전파**하고
투자자-기업간 정보교류와
상호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끝으로, **지역 주력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**를 위해
그 지역 산업과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
부산은행 등 지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며
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Ⅳ. 맺음말

잘 아시다시피,
자본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은
복잡한 이해관계,
부족한 노하우와 인프라 등 **여러 애로**가 있고
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.

하지만 **기업주, 투자자, 정부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**
반드시 **한국형 기업구조조정 시장이**
뿌리 내리고 발전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.

오늘 토론회를 계기로
앞으로 **자본시장이**
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
우리 **주력 산업의 생태계와 일자리를 지키는**
전문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

그 과실이
기업, 투자자, 근로자 모두에게 **골고루 돌아가게 되는**
선순환적 구조조정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기를
희망합니다.

감사합니다.